

농촌주민의 주소증에 대한 조사연구

김락형, 김길중, 안철호

용진농민한의원 부설 농촌질환 연구소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

A Study on the Chief Complaints among Farmers in the Rural Community

Kim Lak-hyung, Kim Gil-jung, An Chol-ho

Yong-jin Institute of Farmer's Disease
Association of Young Oriental Medical Doctors

Abstract

Objectives an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ief complaints among fam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40 famers who live in the rural area in Wanju-gun Jeonbuk province. They were received medical treatment by oriental doctors who visited each village from July 1996 to June 1999.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ir medical charts.

Results and Conclusions: The number of female patients was 449(70.16%) an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191(29.84%). The group of patients above 70 years was 32.81%, 60-69 years 32.03%, 50-59 years 20.15%, 40-49 years 8.90%, and bellow 39 years 6.09%. The most frequent complaint in farmers was low back pain(27.16%), the second was knee joint pain(16.14%), the third was shoulder pain(12.06%), and the fourth was headache-dizziness(9.59%). The frequency of musculoskeletal disease(64.48%) was most high, and cardiovascular disease(11.33%) was the second, gastrointestinal disease(10.73%) was the third, respiratory disease(3.42%) was the fourth.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musculoskeletal disease—especially low back pain and knee joint pain—in study and treatment of farmer's disease.

Key words : Chief complaint, Farmer's disease, Low back pain, Musculoskeletal disease

I.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2차, 3차 산업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1차 산업인구중 대다수인 농촌인구의 감소는 산업화과정에서 발생된 이농의 결과이며, 이농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연령층이었다¹⁾.

1980년과 1999년을 비교하여보면 농가인구는 1082만여명에서 1999년 420만여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대당 인구수도 5.02명에서 3.05명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인구는 50%에서 51.6%로 증가하였으며, 50세이상의 인구비율은 20.4%에서 4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세대 당 인구 수의 감소로 발생하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농가소득의 감소 및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져왔으며,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 많은 보건의료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2,3)}.

이러한 만성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운동기계의 통증은 농촌 주민들의 주된 호소증상이며, 농촌주민의 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이다^{3,4)}.

과거 농촌질환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농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농부증(farmer's syndrome)은 1943년 일본 북해도의 농촌부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진단명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적당한 건강조사방법이 없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어왔다.

농부증의 판정은 정해진 8개의 증상을 '있다',

'가끔 있다', '없다'로 구분하여 각각 0점, 1점, 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6)}.

국내에서는 1976년 남택승의 연구⁵⁾ 이후 각 지역에서 농부증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⁶⁻¹⁰⁾, 이밖에도 농촌질환의 연구로는 상병에 대한 연구¹¹⁾, 질병의 이환율에 대한 연구¹²⁾, 급만성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3,4,13)}, 주소증 발생에 대한 연구¹⁴⁾등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농촌질환 연구에 주로 이용된 농부증의 조사는 정해진 8가지의 증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른 증상들은 조사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 농촌주민의 실제적인 불편사항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회진료 결과를 중심으로 주소증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농촌주민의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불편한 증상에 대한 조사로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실시한 용진농민한의원 순회진료에서 나타난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소증을 조사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용진농민한의원에서 실시한 1996년 7월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신기 서계마을을 비롯하여 7회, 1998년 3회, 1999년 4회의 순회진료에 참가한 6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표 1. 순회진료 일정

| 차 수 | 일 시 | 장 소 | 환자수 | 연인원 | |
|--------|------------------|------------------------------|-------------------|-------|-----|
| 96년 1차 | 1996.07.10 | 용진면 상운리 신기, 서계마을(1회) | 24 | 24 | |
| | 2차 | 1996.07.25 | 용진면 상삼리 전상삼마을(1회) | 15 | 15 |
| | 3차 | 1996.08.07 | 용진면 신지리 용복마을(1회) | 35 | 35 |
| | 4차 | 1996.08.28 | 용진면 운곡리 지동마을(1회) | 52 | 52 |
| | 5차 | 1996.10.09 | 용진면 간중리 오천부락(1회) | 30 | 30 |
| | 6차 | 1996.10.23 | 용진면 구억리 원구억(1회) | 20 | 20 |
| | 7차 | 1996.11.06 | 용진면 용홍리 시천부락(1회) | 24 | 24 |
| 98년 1차 | 1998.03.09~03.20 | 용진면 상삼리 용교, 용암부락(용교6, 용암 6회) | 107 | 311 | |
| | 2차 | 1998.04.20~04.25 | 화산면 성북리 거사마을(6회) | 81 | 252 |
| | 3차 | 1998.05.18~05.29 | 용진면 지암리 운곡마을(6회) | 60 | 189 |
| | 99년 1차 | 1999.03.22~03.27 | 용진면 구억리 목효마을(6회) | 39 | 116 |
| 2차 | 1999.05.10~05.15 | 용진면 용홍리 부평마을(6회) | 59 | 225 | |
| 3차 | 1999.05.11~06.01 | 고산면 율곡리 율곡교회(4회) | 43 | 95 | |
| 4차 | 1999.06.21~06.26 | 용진면 상운리 신기-서계마을(6회) | 51 | 140 | |
| 합계 | | | 640 | 1,528 | |

2. 연구 방법

순회진료는 주민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 마을의 회관을 이용하였고, 주로 일과가 끝나는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환자 진료는 용진 농민 한의원과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 소속 한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소증을 복수로 기입하였다.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주소증을 운동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

기계, 오관, 피부 및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운동기계는 부위에 따라서,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는 호소 증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III. 결 과

1. 진료환자의 성별분포

전체 진료환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640명중에서 여자환자가 449명(70.16%) 남자 환자가 191명(29.84%)이었다. (표 2, 그림 1)

표 2. 진료환자의 성별분포

| | 96년(%) | 98년(%) | 99년(%) | 합계(%) |
|----|-----------|------------|------------|-------------|
| 남자 | 80(40%) | 59(23.8%) | 52(22.1%) | 191(29.84%) |
| 여자 | 120(60%) | 189(76.2%) | 140(77.2%) | 449(70.16%) |
| 합계 | 200(100%) | 284(100%) | 192(100%) | 640(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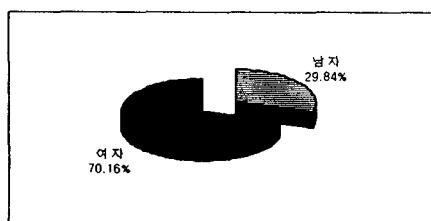


그림 1. 진료환자의 성별분포

2. 진료환자 연령별 분포

전체 진료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70세이상이 32.8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60-69세(32.03%), 50-59세(20.15%) 순이었다.(표 3, 그림 2)

표 3. 진료환자의 연령별 분포

| | 96년 | 98년 | 99년 | 합계(%) |
|--------|-----|-----|-----|-------------|
| 39세이하 | 4 | 27 | 8 | 39(6.09%) |
| 40-49세 | 12 | 34 | 11 | 57(8.90%) |
| 50-59세 | 35 | 42 | 52 | 129(20.15%) |
| 60-69세 | 68 | 80 | 57 | 205(32.03%) |
| 70세이상 | 81 | 65 | 64 | 210(32.81%) |
| 합계 | 200 | 248 | 192 | 640(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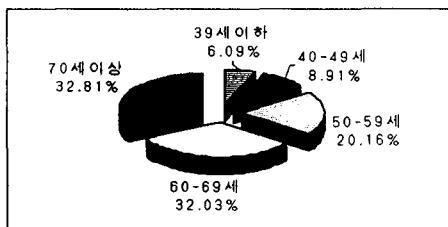


그림 2. 진료환자의 연령별 분포

3. 주소증의 질환군별 분류

총 호소증상 1053개 중에서 운동기계 증상이 679개(64.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환기

계 증상 193개(18.33%), 소화기계 증상 113개(10.73%), 호흡기계 증상 36개(3.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그림 3)

표 4. 진료환자의 질환군별 분포

| | 96년(%) | 98년(%) | 99년(%) | 합계(%) |
|------|--------------|--------------|--------------|---------------|
| 운동기 | 206(63.19%) | 251(63.22%) | 222(67.27%) | 679(64.48%) |
| 순환기 | 70(21.47%) | 66(16.62%) | 57(17.27%) | 193(18.33%) |
| 소화기 | 34(10.43%) | 46(11.59%) | 33(10.00%) | 113(10.73%) |
| 호흡기 | 16(4.91%) | 5(1.26%) | 15(4.55%) | 36(3.42%) |
| 비뇨기 | 0(0.00%) | 6(1.51%) | 2(0.61%) | 8(0.76%) |
| 오관* | 0(0.00%) | 11(2.77%) | 1(0.30%) | 12(1.14%) |
| 피부 | 0(0.00%) | 3(0.76%) | 0(0.00%) | 3(0.28%) |
| 기타** | 0(0.00%) | 9(2.27%) | 0(0.00%) | 9(0.85%) |
| 합계 | 326(100.00%) | 397(100.00%) | 330(100.00%) | 1053(100.00%) |

호소증상은 복수처리하였다.

* 오관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증상인 이명, 이통, 비색, 안질환 등을 포함시켰다.

** 기타에는 쇠약감, 뱀에 물린 경우와 간경변, 암 등과 같이 증상이 아닌 질병명을 호소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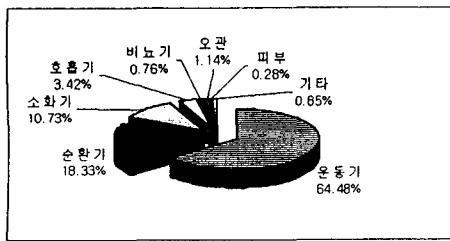


그림 3. 주소증의 질환군별 분류

4. 순회진료 환자의 주소증

표 5. 순회진료 주민의 주소증

| | 96년 | 98년 | 99년 | 합계(%)* | (%)** |
|---------------|------------|------------|------------|------------------|----------------------|
| (운동기계) | | | | | |
| 요통 | 84 | 107 | 95 | 286(42.12%) | (27.16%) |
| 슬통 | 49 | 59 | 62 | 170(25.04%) | (16.14%) |
| 견비통 | 37 | 54 | 36 | 127(18.70%) | (12.06%) |
| 항강 | 10 | 17 | 20 | 47(6.92%) | (4.46%) |
| 손및손목통 | 6 | 13 | 0 | 19(2.80%) | (1.80%) |
| 기타 | 20 | 1 | 9 | 30(4.42%) | (2.85%) |
| 합계 | 206 | 251 | 222 | 679(100%) | (64.48%) |
| (순환기계) | | | | | |
| 두통현훈 | 33 | 29 | 39 | 101(52.33%) | (9.59%) |
| 심계정충 | 5 | 8 | 5 | 18(9.33%) | (1.71%) |
| 사지마목 | 21 | 9 | 7 | 37(19.17%) | (3.51%) |
| 반신불수 | 0 | 4 | 4 | 8(4.15%) | (0.76%) |
| 기타 | 11 | 16 | 2 | 29(15.03%) | (2.75%) |
| 합계 | 70 | 66 | 57 | 193(100%) | (18.33%) |
| (소화기계) | | | | | |
| 복통 | 4 | 5 | 5 | 14(12.39%) | (1.33%) |
| 변비설사 | 12 | 11 | 16 | 39(34.51%) | (3.70%) |
| 소화불량 | 10 | 14 | 10 | 34(30.09%) | (3.23%) |
| 오심구토 | 7 | 14 | 2 | 23(20.35%) | (2.18%) |
| 기타 | 1 | 2 | 0 | 3(2.65%) | (0.28%) |
| 합계 | 34 | 46 | 33 | 113(100%) | (10.73%) |
| (호흡기계) | | | | | |
| 감모 | 7 | 3 | 6 | 16(44.44%) | (1.52%) |
| 해수천식 | 9 | 2 | 9 | 20(55.56%) | (1.90%) |
| 합계 | 16 | 5 | 15 | 36(100%) | (3.42%) |
| (비뇨기계) | | | | | |
| 0 | 0 | 6 | 2 | 8(100%) | 8(0.76%) |
| (오관) | | | | | |
| 0 | 0 | 11 | 1 | 12(100%) | 12(1.14%) |
| (피부) | | | | | |
| 0 | 0 | 3 | 0 | 3(100%) | 3(0.28%) |
| (기타) | | | | | |
| 0 | 0 | 9 | 0 | 9(100%) | 9(0.85%) |
| 합계 | 326 | 397 | 330 | 1053 | 1053(100.00%) |

* 각 질환군 내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 전체 호소증상 합계인 1053에 대한 백분율

1) 운동기계 증상의 호소

요통의 호소수가 286회로 운동기계 증상 전체의 42.1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슬통 170회(16.14%), 견비통 127회(18.70%)도 많은 호소를 보였다. (표 5,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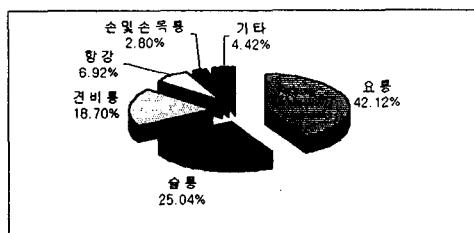


그림 4. 운동기계 증상의 호소수

2) 순환기계 증상의 호소

순환기계 증상에서는 두통현훈이 101회(52.3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였으며, 사지마목 37회(19.17%), 심계정충 18회(9.33%), 반신불수 8회(4.15%) 순이었다. (표 5,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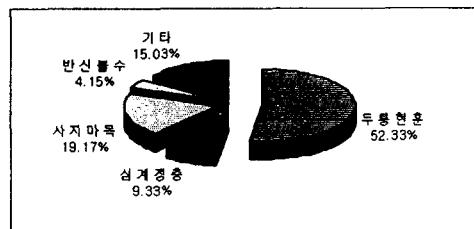


그림 5. 순환기계 증상의 호소

3) 소화기계 증상의 호소

소화기계 증상에서는 변비설사 39회(34.51%), 소화불량 34회(30.39%), 오심구토 23회(20.35%), 복통 14회(12.39%)의 호소를 나타내었다. (표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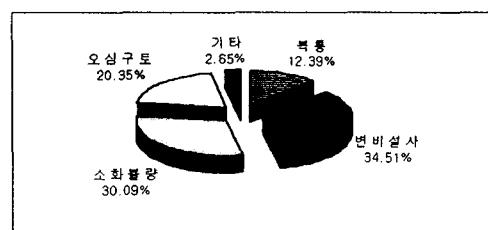


그림 6. 소화기계 증상의 호소

4) 호흡기계 증상의 호소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감모와 해수천식을 호소한 환자들이 있었는데 각각 16회(44.44%), 20회(55.56%)를 나타내었다. (표 5,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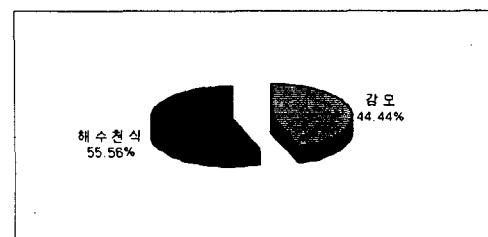


그림 7. 호흡기계 증상의 호소

5. 다빈도 호소 증상

전체 호소증상 1053회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 것은 요통으로 286회(27.16%)이었으며, 슬통 170회(16.14%), 견비통 127회(12.06%), 두통현훈 101회(9.59%)이었고, 황강, 변비설사, 사지마목, 소화불량 등도 30회 이상의 호소를 보였다. (표 6, 그림 8)

표 6. 다빈도 호소증상

| | 96년(%)* | 98년(%)* | 99년(%)* | 합계(%)** |
|------|------------|-------------|------------|-------------|
| 요통 | 84(25.77%) | 107(26.95%) | 95(28.79%) | 286(27.16%) |
| 슬통 | 49(15.03%) | 59(14.85%) | 62(18.79%) | 170(16.14%) |
| 견비통 | 37(11.35%) | 54(13.60%) | 36(10.91%) | 127(12.06%) |
| 두통현훈 | 33(10.12%) | 29(7.30%) | 39(11.82%) | 101(9.59%) |
| 항강 | 10(3.07%) | 17(4.28%) | 20(6.06%) | 47(4.46%) |
| 변비설사 | 12(3.68%) | 11(2.77%) | 16(4.85%) | 39(3.70%) |
| 사지마목 | 21(6.44%) | 9(2.27%) | 7(2.12%) | 37(3.51%) |
| 소화불량 | 10(3.07%) | 14(3.53%) | 10(3.03%) | 34(3.23%) |
| 전체 | 326(100%) | 397(100%) | 330(100%) | 1053(100%) |

* 각 연도의 호소증상 합계에 대한 백분율

** 전체 호소증상 합계인 1053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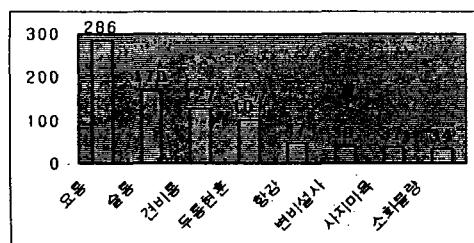


그림 8. 다빈도 호소증상

IV. 고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2차 3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반면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다. 농촌지역의 환경조건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도시지역과 선진외국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뒤떨어진 상황이다¹⁾.

현 우리 농촌사회는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부족, 젊은 연령층의 도시진출로 인한 노령화 및 노인 부녀자의 노동강도증가, 비닐하우스내 농약살포 등 작업환경의 열악함, 농기계사고의 위험성, 주거환경 및 영양의 부족, 도시에 비해 낮은 문화수준, 영세 농업경영에 따른 과도한 노동 등 많은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1,3)}.

우리나라의 농촌질환에 대한 연구는 농부증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5-8,10)}, 농촌주민의 상병에 대한 연구¹¹⁻¹³⁾, 퇴행성질환이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연구^{3,4)} 등이 진행되어왔다.

농부증은 1976년 남택승의 연구⁵⁾ 이후 여러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왔다. 농부증은 1943년 일본의 농촌지역 주민들, 특히 중년 이후의 농촌 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을 Kumagai (熊谷)가 처음 보고하였으며, Hiji(藤井)등이 1952년 북해도 지역의 농민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여덟 가지 증상을 묶어 '농부증'(Japanese farmer's complex)이라고 칭하였다. 농부증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8개 증상을 이용하는데, 어깨결림(shoulder stiffness), 요통(lumbago), 손발저림(paresthesia of hand or foot), 야간빈뇨(frequent nocturnal urination), 호흡곤란(dyspnea), 현훈(dizziness), 복부팽만감(gastric fullness), 불면증(insomnia)이다⁶⁾.

농부증은 질병의 전단계를 나타내는 증상군으로 만성피로상태, 불건강 상태 및 질병 상태를 표시하는 건강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부증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으로 농촌지역주민에게 국한된 직업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전강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순회진료에서 나타난 주소증을 조사하였다. 용진농민한의원은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와 용진보건신협에 의하여 완주군 용진면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설립된 이후 인근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해오고 있다. 주로 일과가 끝나는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해당마을의 마을회관등을 이용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였다.

순회진료 지역인 완주군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 근교의 농촌지역인데, 용진면은 전주 외곽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다. 화산면 성북리 거사마을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의 농촌지역으로 대둔산과 경천저수지에 인접하여 있고, 고산면 울곡리는 고산면과 비봉면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들 지역은 시설원 예 및 밭작물이 많은 편이고 일부지역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징으로 비교적 강도 높은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한의원 순회진료 환자의 연령분포는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 인원 640명중 205명(32.03%)과 210명(32.8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부증 양성율이 증가한다는 농촌지역에서의 농부증 연구⁸⁻¹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통증호소가 증가한다는 선 등의 연구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한다는 한 등의 연구³⁾와 비슷한 결과이다. 1970년대에 비하여 농촌 인구는 크게 감소하였고, 농촌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²⁾. 농촌주민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노령인구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의 농가인구의 남녀 비율이 48.4 : 51.6 인데²⁾ 농민한의원 순회진료에서 나타난 진료환자 남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91 명(29.84%), 여자 449명(70.16%)를 차지하여 여자환자 수가 남성환자 수의 2배 이상이었다.

농부증에 관한 연구에서 흥 등⁹⁾은 농부증 양성율이 남녀 각각 13.6%, 36.5%라고 하였고, 장 등⁷⁾은 남녀 각각 21.0%, 45.1%라고 하였다. 한 등³⁾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1000명당 건당유병율을 남녀 각각 300, 425라고 보고하여 여성 환자수가 남자 환자수에 비하여 많았던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순회 진료에서 여성환자가 남성환자에 비하여 많은 것은 여성의 신체조건과 젊은 인력의 도시진출에 따른 농촌지역여성에서 노동강도의 강화, 그리고 남성에 비교하여 가사부담이 전담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농촌 여성의 농업 노동분담은 남자와 거의 비슷해진 반면 가사노동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여성의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등도 이후 여성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1,16)}.

농민한의원 순회진료를 통하여 농촌주민의 주소증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진료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각각 하나씩으로 하여 합계를 내었다. 진료인원 640명에서 나타난 총 1053회의 주소증 중에서 요통 슬통 견비통 항강 손과 손목의 통증 등의 운동기계증상이 679회(64.48%)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환기계 증상(193회, 18.33%), 소화기계 증상(113회, 10.73%), 호흡기계증상(36회, 3.42%) 순이었다. 비뇨기계, 오관, 피부 질환은 적은 수를 보였다.

운동기계 증상 중에서도 요통이 286회로 전체의 2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고, 슬통이 170회로 16.14%, 견비통이 127회로 12.06%, 두통현훈이 101회로 9.59%, 항강이 47회로 4.46%, 사지마목이

37회로 3.51%, 변비설사가 39회로 3.37%, 소화불량이 34회로 3.23%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농부증에 대한 연구에서 '요통', '어깨결림'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6-8,10)}. 또한 한 등³⁾의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신경통과 관절염의 유병율을 합하여 1000명당 건당 유병율 18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과 선 등⁴⁾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조사에서 요부, 견부에서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슬통은 총호소수 170회로 16.14%에 해당하여 요통 다음으로 많은 호소증상으로 나타났다. 선 등⁴⁾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요부 견부 상지부 하지부 다음으로 슬부의 순서로 통증의 위치를 보인다고 조사한 바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선 등의 조사대상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자의 수가 많은 것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생각된다. 슬통이 농촌 주민들에게서 요통 다음으로 많은 호소를 보인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농촌질환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에서 슬통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기존의 농부증에 대한 조사에서 '손발 저림'의 항목이 요통, 견비통과 비슷한 점수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 유사한 항목인 사지마목은 전체의 3.51%를 차지하여 요통, 슬통, 견비통, 두통현훈, 항강 다음에 해당하여 차이를 보였다. 농부증의 호흡곤란 항목과 유사한 해수천식은 호소수 20회(1.90%)로 적은 호소를 보였고, 또한 약간빈뇨, 불면 등의 항목도 본 조사에서는 호소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 숫자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상이 농부증의 판별 증상의 하나로 포함되는데 비하여 본 조사에서는 극히 적은 수로 나타난 것은 농촌주민들의 주로 불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증상보다는 요통, 슬통, 견비통, 두통현훈, 항강 등이 우선되기 때문이며, 또한 농부증에서는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주로 불편해하는 증상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농민들에게서 요통, 슬통, 견비통 등 골관절계의 통증이 많은 이유는 농작업의 대부분이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손을 써서 일하는 작업이 많고, 이때 해당관절과 근육이 과도한 부하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통 현훈이 많은 것은 태양복사열과 지열속에서 작업과 비닐하우스 작업, 농약살포 작업시의 노출, 여성농민에서의 빈혈 등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증상들 외에 농촌지역의 특수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는 비닐하우스 내 작업, 농기계 사용과 그에 따른 재해, 농약중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본 조사의 부족한 면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는 농촌 마을 순회 진료를 통한 진료 결과의 분석으로서 해당 농촌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고 순회진료에 방문한 사람에 대한 조사였다. 그리고 환자가 주로 불편해하는 증상 즉, 진료 당시 불편해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증상을 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부차적이고 가벼운 증상들은 제외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리 항목을 정해놓고 유무확인에 중요성을 두는 농부증에 대한 연구와 차이가 존재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주소증들은 실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주로 일상에서 많이 불편해하는 증상이므로, 농촌질환의 특징을 규정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진료하는 데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용진농민한의원에서 실시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의 순회진료를 통한 농촌주민의 주소증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진료환자의 성별분포는 전체 640명 중에서 여자환자가 449명(70.16%)으로 남자환자 191명(29.8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2. 환자의 연령은 70대 이상(32.81%)과 60대(32.03%), 50대(20.1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의 질환군별 분류에서는 운동기계 증상이 64.4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순환기계 증상(18.33%), 소화기계 증상(10.73%)의 순이었다.
4. 다빈도 호소 증상으로는 요통(27.16%), 슬통(16.14%), 견비통(12.06%), 두통현훈(9.59%), 항강(4.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농촌주민의 건강상의 문제를 특징 짓는데 있어 운동기계 증상, 특히 요통 슬통 견비통 등을 중요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고려한 농촌주민의 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참고문헌

1.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 농민건강과 보건의료. 서울, 한울, pp15-55, 73-81, 1993.
2. 통계청: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통계기획담당관실. 2000.
3. 김두희, 정 철: 일부 농민들의 농업관련 질환 및 사고. 농촌의학회지. 23(1):39-49, 1998.
4. 한길수, 천병렬, 예민혜: 농촌지역 주민의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 및 이용의료기관. 한국농촌의학회지. 21(2):209-220, 1996.
5. 선명훈, 박인선, 조근열: 농촌지역 주민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6. 남택승: 농부증에 대하여. 농촌의학회지. 1(1):43-46, 1976.
7. 최진수, 손석준, 문 강, 안종우: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농부증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1993.
8. 문 강, 최진수, 손석준, 김병우: 전남지역주민의 농부증에 관한 역학적 연구. 예방의학회지, 26(3):321-331, 1993.
9. 박정은: 농촌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의학회지, 15(2):97-106, 1990.
10. 선명훈, 박인선, 조근열: 농촌지역 주민의 근골격계의 통증에 대한 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16(1):40-47, 1991.
11. 손석준, 신준호, 최진수: 농약중독의 현황과 대책. 한국농촌의학회 추계학술대회. 1996.
12. 장성훈, 이건세, 이원진: 충주지역 전업농민의 농부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의학회지. 23(1): 15-26, 1998.
13. 송주영, 이연경, 이석구, 이태용, 조영채, 이동배: 충남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농부증에 관한 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23(1):3-14, 1998.
14. 홍대용, 김장락, 이명순, 강경희, 하호성: 경남 일부지역의 농부증 및 하우스증 발생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농촌의학회지. 21(2):173-193, 1996.
15. 문 강, 최진수, 손석준, 김병우: 전남지역주민의 농부증에 관한 역학적 연구. 예방의학회지. 26(3):321-331, 1993.
16. 박정선: 일부 농촌주민의 상병 및 의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의학회지. 14(1):65-74, 1981.
17. 안문영: 일부농촌지역의 상병상태연구(충남 서천군). 예방의학회지. 17(1):107-119, 1984.
18. 이진희, 고기호, 김용식, 이정애: 일부 농촌주민과 도시영세민의 상병 및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1(2):404-418, 1988.
19. 강승원: 농촌지역 주민에 빈발하는 주소를 중심으로 한 질병분류. 예방의학회지. 12(1):61-69, 1979.